

제114회 8월 14日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14회 발명교실이 ...○
- ... 지난 8월 14日 발명 ...○
- ... 장려관 연구실에서 ...○
- ... 개최되었다. 매월 ...○
- ... 둘째 토요일 오후 1 ...○
- ... 시 30분에 개최되는 ...○
- ... 발명교실은 이달에 ...○
- ... 도 1백여명이 참석 ...○
- ... 하여 성황을 이루었 ...○
- ... 다. 이날 발명교실 ...○
- ... 에서는 만나기업 대 ...○



방1칸용 석유보일러 발명가 안나기업 김철 사장

학생이 공부할 때는 90점 이상만 맞아도 우등생이 될 수 있지만, 상품은 경쟁속에서 100점이 되어만이 모범상품이 될 수 있다. 만약 하나라도 결함이 발견된다면 품질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온돌로 만들어진 방에서 생활을 해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 따뜻한 아랫목이 허리를 대고 누워 있다보면 아무리 피곤했던 하루였을지라도 이내 피로가 풀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생활과 체질에 딱 맞기 때문일 것이다.

발명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참 궁금한 문

제이다.

오늘은 우리민족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방과 관련하여 발명이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로 방1칸용 석유 보일러를 발명한 김철 사장이다.

김사장이 발명을 하게된 동기는 남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남들은 발명을 위한 발명으로 일을 벌려 시작하지만 김사장은 동학사상을 연구하고자 부족한 경제적 능력을 채우기 위해 발명을 시작하였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남보다 수학에서 많은 재능을 보였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는 그 재능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활자금을

마련하되 동학사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사장이 발명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가정용 소형 연소기였다. 가정용 난방방식이 연탄에서 석유로 점차 바뀌어가는 추세에 따라 온돌용 소형 연소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보통 서양에서 이용되는 버너의 경우 시간당 열량이 최소 10,000kcal가 필요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방 1칸에는 서양식의 10분의 1인 750kcal~1,500kcal면 충분하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열량이 적은 경우에는 버너식이 이용되지 못하고, 불편하지만 심지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열량이 적다보니 심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표 김철 사장의 성 ...○
- ... 공사례 발표에 이어 ...○
- ... 황종환 변리사의 ...○
- ... 「산업재산권제도」 ...○
- ... 에 대한 강의와 김 ...○
- ... 관형 본회 상근이사 ...○
- ... 의 「발명의 창출과 ...○
- ... 사업」에 대한 강의 ...○
- ... 와 토론이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 ...○
- ... 를 간추려 소개한 ...○
- ... 다. <이두성記> ...○



심지식은 화재의 위험뿐 아니라, 화력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열효율도 적고 심지를 갈아끼워야 하는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다.

김사장이 처음 만든 제품은 100점짜리가 못되었다.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김사장이 아니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부터 안해본게 없는 김사장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시정하고 또 개량할 수십번씩 되풀이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려 35건이라는 실용신안의 등록과 10건의 의장등록도 마쳤다. 참으로 놀라운 집념이었다.

그 많은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석유 연소기의 과열시 유류차단 장치」는 10건을 계속 해서 출원하였다. 그래서 지난 92년 12월에는 본회가 주최한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함께 누렸다. 1년반동안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금상

을 수상할 당시만 해도 많은 유사품 제조업자들이 있었지만 「과열시 유류차단 장치」와 관련된 착상출원을 단 1건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김사장의 발명품은 뛰어났었다.

김사장이 만든 보일러의 특징은 연소 중에 소음 안나고, 열의 고저로 인해 발생하는 열파상 현상이 안나기 때문에 잠자리가 편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소음 안나! 열파상 안나!)으로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다. 이 상표도 일본 중국에까지 등록을 마쳤다니 여기서도 김사장의 열심을 볼 수 있다.

김사장은 발명을 하면서도 동학사상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했다. 발명에도 동학에서 얘기하는 양심이나 도덕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돈벌 욕심으로 발명에 빠진다면 그 발명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순리와 이치에 맞게 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도 도와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발명과 道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김사장은 말한다.

김사장의 그런 사상과 더불어 「학생이 공부할 때는 90점 이상만 맞아도 우등생이 될 수 있지만, 상품은 경쟁속에서 100점이 되어야만이 모범 상품이 될 수 있다. 만약 하나라도 결함이 발견된다면 고품질 경쟁사회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라는 그의 말 속에서 김사장의 생활철학과 발명에 대한 열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

신간안내

지금은 발명시대

가격 : 5,000원

문의 : 551-5571